

‘1회용품 NO! 탄소중립 실천 앞장’

전북교육청, ESG 실천 위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마련… 탄소중립 실천 약속 담은 포스터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탄소중립 실천을 본격화했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ESG 실천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학교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친환경 생활 문화 확산과 공공기관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청사의 경우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종이 문서 생산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청내 카페 이용 시 머그컵이나 텀블러 이용 △배달음식 주문 시 다화용기 사용업체 이용 △종이 없는 회의 문화 만들

기 등이 있다. 학교에서는 단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발적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실태 및 에너지 절감 이행 점검을 의무화해 행사나 회의 때 점검표를 붙이고 자가 점검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약속을 담은 포스터와 리플릿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실천 약속 with 전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된 포스터는 사탕수수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종이로 제작됐으며, 리플릿은 파일로만 배포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탄소중립 실천 약속’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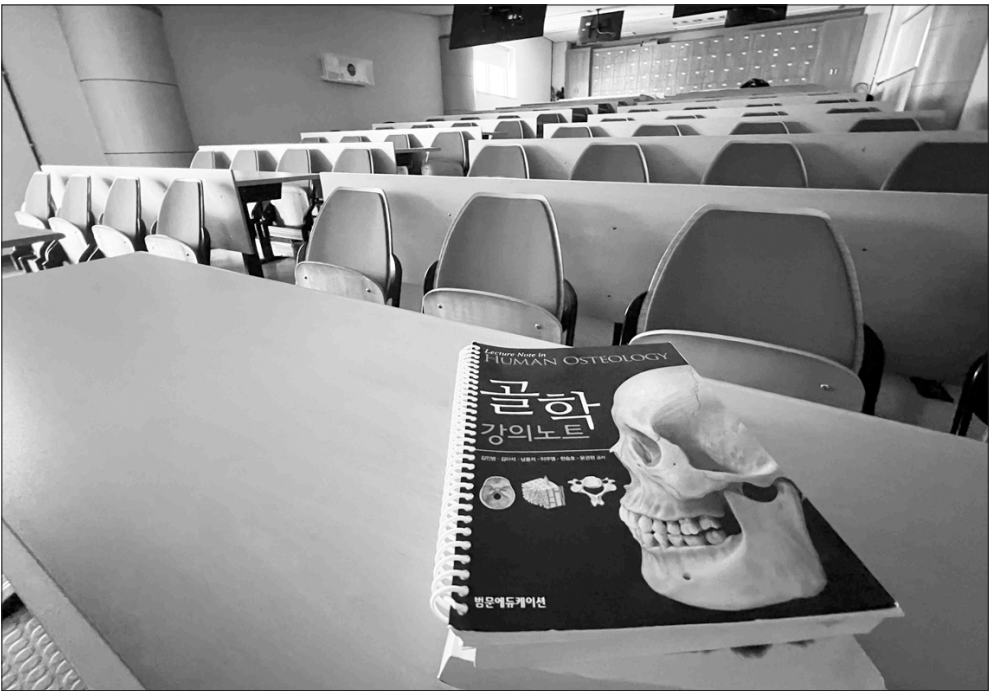
아울러 △분리 배출 △가까운 거리 걷기 △우리지역 농산물 구입 △작게 사고 오래 쓰기 △플러그 뽑기 등 탄소중립 챌린지를 체크리스트로 담아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 실천약속’ 도전 프로그램 참여도는 학교 및 지역교육청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북교육청은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 모든 교육기관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대규모 공사

5개 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부터 대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가칭)전북동부산업권 특수학교 신축 등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반침하 여부 및 굴착 사면 유지관리 상태 △거푸집 및 동바리 등 구조물 설치 상태 △공사장 주변 관리 및 건설장비 등을 점검한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 제로화 및 건설시공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은 물론, 학사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의대 서적만 놓여 있는 강의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재검토한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놓여 있는 의과 서적들

(사진=뉴스1 제공)

도내 대학들 ‘2025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선정

전주대 박물관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박물관의 문화·연구자원을 활용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사회 및 교내 구성원들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전주대 박물관에 따르면 올해 ‘미래 가치를 여는 문화발전소, 대학 박물관’이라는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슬로건에 맞춰 ‘한지 속에 감춰진 소중한 인연·오래된 편지 간할, 일상을 벗보다’라는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군산대 미술관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 미술관이 2025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국립군산대학교 미술관은 이번 사업의 주관교로서 경북대학교 미술관과 제주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공동으로 연합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은 대학 박물관·미술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전시·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대학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1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연합 전시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를 개최한다. 6월부터 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전경

특별전은 지역민에게 문화공간을 지원해 함께하는 전시를 만들고자 6월에는 지역의 특징인 한지와 관련된 ‘한찰’을 중심으로, 11월에는 지역작가들이 만든 한지 작품을 활용한 전시를 구성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문화적 활력과 사회적 결속 강화를 위해 상설체험



국립군산대학교 정문

주대학교를 시작으로 8월에는 경북대학교, 10월에는 국립군산대학교에서 마무리 짓는 6개월의 대장정을 떠난다. 가족의 해체, 인구와 지역의 소멸이라는 중요한 현실 과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 보는 기획으로 놀이가족 골목대장(국립군산대), 환상가족(경북대), 순덕이의 하루(제주대)라는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작품들을 통해 사회적 연대로서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의미

을로 한지를 활용한 방향제 만들기, 전시 연계 강연, 문화소외계층(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등)을 대상으로 답사와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현수 학예연구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박물관 소장품 및 지역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시, 교육, 탐방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지역사를 재발견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별전시는 VR을 구축해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며,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학예연구실(063-220-2159)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를 다루고자 했다. 전시와 함께 각 대학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 강좌 등을 통해 연합 전시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기획한 미술관 학예사는 “국립군산대학교 미술관은 각고의 노력으로 작년 등록미술관 승인과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회원관 자격을 획득하여 이번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서로 다른 지역, 대학, 기관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합 전시는 미래가치를 여는 문화발전소로서의 대학미술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군산=이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독창적 문체 · 뛰어난 상상력’

전북대 국문과, 고하 최승범 문학상
공모전 문집 ‘이 생의 이름’ 발간
시 · 소설 등 부문별 각 5편씩 수록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고하 최승범문학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제2회 고하 최승범 문학상 공모전 문집 ‘이 생의 이름’을 발간했다.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시, 소설, 수필 등 총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 문학에 열정을 지닌 학생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실력을 선보였다. 이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 부문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이 이번 문집에 실렸다. 발간된 문집 ‘이 생의 이름’에는 시, 소설, 수필 등 부문별로 각 5편씩 모두 15편이 수록됐다. 각 장 말미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담아 독자들이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문집에서는 창작의 과정을 독특한 비유적 발상으로 형상화한 시, 독창적 문체와 뛰어난 상상력이 돋보이는 소설, 일상의 따뜻함을 어린 조카와의 이야기로 진솔하게 풀어낸 수필 등 다양한



개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엄숙희 학과장은 문집 서문을 통해 “이들의 글은 이제 개인의 작업을 넘어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박차

전북교육청, ‘아침 10분 독서’ 등 프로그램 확대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아침 10분 독서’나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아침 10분 독서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독서 시간을 확보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다. 2025년 테마별 학급독서 프로그램 운영지원(251교), 아침 10분 독서 운영학교 지원(279교) 등 총 530교를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책 읽기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어,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사업도 확대·추진된다.

올해 56개 학교도서관 공간혁신을 시작으로 5년간 56개교씩 모두 276개 학교도서관을 미래형 학교도서관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기존에 완료한 156개교를 포함, 전체 학교의 약 60%인 432개의 학교 도서관이 미래형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이와 함께 사서교사, 사서 등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으로 배치된다. 2023년 기준 138개교, 배치율 18.3%에 불과했던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올해 268개교, 배치율 35.5%를 목표로 추진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독서는 학생의 실력을 키우는 바탕”이라며 “학교에 좋은 책이 갖춰지고, 선생님들이 독서지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능형기계부품 2024년 우수과정 선정

전주대 산업공학과, 전북TP 사업평가 ‘A’ 등급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는 2024년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인력양성사업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12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능형기계부품사업(사업단장 이충호, 이하 지능형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 매년 참여학생에게 약 1억 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산업공학과 전공교육과 함께 특성화 3Star 교육과정인 신뢰성 설계-검증-평가 교육, 3D스캐닝 및 역

설계 교육, 솔리드웍스, 리커다인 교육 등 CAx전문가 과정과, 파이썬을 이용한 빅데이터 교육과 AI 자율주행 이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능형사업은 매년 독일, 일본으로 국외현장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공기업 등과 산학프로젝트를 진행해 학생들의 취업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8년 연속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된 지능형사업은 3월 신학기를 맞아 신규학생을 선발중이다. /장은성 기자

도, ‘전북 RISE 사업 공모’ 24~31일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학과 지역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북 RISE(라이즈) 사업’ 공모를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13일 더메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2+3년) 동안 추진되며, 연간 약 836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RISE(라이즈) 사업은 △생명·전환산업 혁신(JB-SPARK) △지역 주력산업 성장

(JB-ROOT) △평생교육 가치 확산(JB-EverLearn)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등 4대 트랙, 총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 내용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창업 지원, 평생직업교육 강화, 시·군 연계 지역발전 프로젝트 등이다. 참여 대상은 고등기관 평가 인증을 받은 도내 대학이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RISE 사업성과관리시스템(https://portal.jiu.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만호 기자